

전국종교지도자한자리 2009 한미당대회 개최

우리나라 7대 종단 300여 종교인의 화합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종교 문화예술제가 부산에서 열렸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최근덕)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2009전국종교지도자 한미당 대회를 개최했다. 첫째 날 오후 3시부터 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교인의 시대적 역할(화쟁사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법산 스님(원효정사 회주, 화쟁문화시민포럼이사장) 발표로 운종모 주교(성공회 영남관구장)의 기조연설, 이정희 박사(천도교종학대 학원장)와 현순호 목사(대구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대표, 안인석 석 자구장(원불교종매교당) 등 전국 종교지도자간의 토론이 펼쳐졌다. 법산 스님은 발제문에서 '원효 성사의 화쟁 철학, 그 논리에 입각해 우리 종교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상생 하기에 하나돼, 우리 국민과 국가가 직면한 모든 고통과 변민들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종교지도자 및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 박지원 기자

한국불교 1700여 년 역사·미래 담아

3~6일 부산시불교연합회 2009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 성료

부산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연합회)는 12월 3~6일 부산 벡스코에서 '2009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를 개최했다. 불교산업 발전과 불교문화 중흥을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는 다양한 전시 및 문화행사로 한국불교 1700여 년 역사를 아우르며 우리 불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고루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팔관회에는 산업부스 150여 개를 개설하고 승복 천연염색 석재 목기 녹차 및 다기 사찰음식 등 불교 산업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연일밥과 사찰음식 등을 소개하는 부스의 모습

특히 테마특별관에서는 '해인사 팔만대장경 특별전' '세계불교유물 대전' '한국 전통등 특별전시관'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수상전 및 금니사경특별전' '세계화페전' '부산불교 30년 특별회고전' 등이 기획

전시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불자와 일반인, 남녀노소 누구나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의 장이 되었다. 축제 첫날인 3일에는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통팔관회 및

정대불사 재현, VIP오찬 리셉션, 세계무형문화재 등재기념 영산재 특별공연이 펼쳐졌다. 4일에는 오전 11시 궁중음악 및 전통무용 공연과 함께 오후 2시부터 해인사 팔만대장경관 이운 및 팔관회대법회가 봉행됐다.

본격적인 주말이 시작되는 셋째 날인 5일에는 정오 전주비빔밥 비빔퍼포먼스와 나눔의 자리가 마련되고, 오후 3시 천연염색 패션쇼가 개최돼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

폐막일인 일요일에는 오전 11시 라온제나 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오후 2시 '팔관회의 의의와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한 경우 스님 초청특별강연, 오후 4시 폐막식 및 경품 추첨·시상식 등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불국토를 찾아서 불교TV염불공양모임

가장 밝은 모임... 염불공양모임

불교계에는 여러 가지 신봉·봉사단체가 있다. 곱게 단장하고 아름다운 음식을 뽐내는 합창단, 주부9단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절 살림살이, 예쁜 미소로 큰스님 이하 귀빈들을 응접하는 도우미도 인기 만점이다. 그런데 무려 15년간 장례식장에서 염불공양

이 아시게 되면 그분들은 미안하고 부담스러워서 우리를 찾은 수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교TV염불공양모임의 15년 세월 속에는 창립멤버였던 고한정숙 부회장의 정례를 직접 치렀던 일도 있다. 봉사를 목적으로 모임 도반들이지만 이제는 죽는



불교TV염불공양모임 회원들.

을 해온 이들이 있다. 어느 누구도 섣뚱 나서지 않는 가장 어둡고 낮은 곳의 사람들을 오직 신심으로 돌보며, 불행주야 전국 어느 곳이라도 찾아가는 부산의 불교TV염불공양모임(회장 하정선, 법명 하도명화)이 바로 그들이다. 불교TV염불공양모임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하정선 회장의 주도로 창립해, 매년 130여 곳씩 현재까지 약 2000여 명의 장례식장에서 염불공양으로 고인의 왕생극락을 발원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회원 수가 400명이었지만 현재 활동하는 회원은 45명, 우대회원은 200명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회원들도 매 장례식마다 고인에게 부처님의 고귀한 가르침을 전하며 떠나보낸다. 1회 장례 시 염불공양 비용은 얼마일까? 불교TV염불공양모임의 절대불변의 원칙은 무료다.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수고비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하정선 회장은 "부처님 가난하든 똑같이 무료로 봉사를 해드린다. 행여 정말 돈이 많아서 수고비를 주셨다는 것을 가난한 분들

날까지 무조건 함께 갈 가족이고 동지가 된 것이다. 다만 회원들의 한결같은 걱정은 젊은 신임회원들의 발길이 끊어진다. 전체 회원의 정례를 모두 돌봐주려면 평균연령 50대 중, 후반인 이들에게 중 맛은 적어도 50년은 족히 더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그간의 업적을 인정받아 지난 11월 14일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조계종포교결집대회에서 1만5,000여 불자가 모인 가운데 '포교원장 원력대상'을 수상했다.

상금 100만원은 화비로 쓸 법도 한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 전액 기부했다.

하정선 회장은 "어느 드라마에서 '나뭇잎이 푹 떨어지니 내 마음도 푹 떨어지더라'는 대사가 내 마음 속에 경종을 울렸다.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좋은 도반들을 만나 염불공양을 할 수 있음에 행복을 느낀다.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들의 육신이 허락하는 한 남을 위해 회향하겠다"고 발원했다. (051)633-4020

박지원 기자

“보살정신 실천으로 행복 부산 열어요”

부불사협, 2009년 마감하는 우수사례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보살정신을 실천하며 부산을 불국토로 만드는 데 앞장서 온 부산불교사회복지·청소년기관협의회(회장 정여, 이하 부불사협)가 한해를 마감하며 우수 프로그램을 발표, 시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부불사협은 11월 24일 오후 3시부터 코모도호텔에서 2009 프로그램 사례발표회 및 직원연찬회를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왼쪽부터) 김상욱(함지골청소년수련원), 박정원(금정시니어클럽), 이세리(개금종합사회복지관) 씨가 올해 우수사례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2009년 올 한해 진행된 각 복지관별 여러 프로그램 중 '홀로어르신 정서지원프로그램 반딧불이: 독거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이세리 사회복지사), '금정체육공원 관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시장형' (금정시니어클럽 박정원 팀장), '찾아가는

전통예절한마당: 말뚝이가 간다'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김상욱 팀장) 등 3개 프로그램이 우수 사례로 선정돼 발표회를 가졌다. 이어 오후 6시부터 열린 직원연찬회에서 우수 사례프로그램 발표자 시상, 사회복지인문인상 시상, 부불사협회장 정여 스님의 축사, 만찬 등이 차례로 이어졌다.

또한, 부산시불교연합회 신도회(회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가 발전기금 200만원을 부불사협에 전달했다. 정여 스님은 "올 한해도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자비행을 실천해준 빛나는 보살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늘 처음처럼이란 말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기관을 찾는 모든 분들 한분 한분을 부처님으로 모신다면 협의회는 날로 향상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늘기쁜마음이사장 지현 스님, 불국토 청소년도량 이사장 법산 스님 등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051)532-0115-7 부산불교사회복지·청소년기관협의회 (www.bsvia.org) 박지원 기자

그물의 바람처럼 걸림 없이...

대학교수불자연합회 창립 20돌 맞아



11월 27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봉행한 부산대학교수불자연합회 창립 20주년 기념대법회 모습.

지식의 상아탑 대학에서 청년불자들의 올바른 인성함양에 진력해 온 교수불자들의 모임이 20돌을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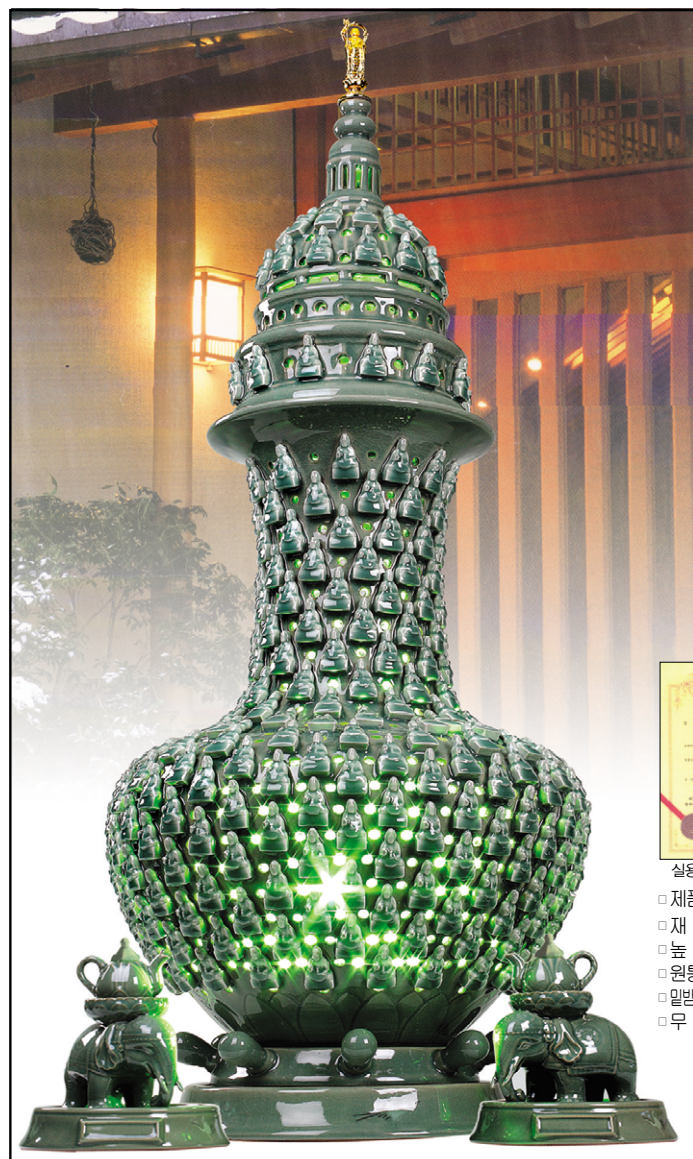
부산대학교수불자연합회(회장 차득근, 동의대 교수)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11월 27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차득근 회장은 "초발심으로 돌아갈 때가 많아 부처님을 향한 신심을 더욱 돈독케 하고 부산불교 발전과 미래불교의 창달에 노력하겠다"며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말처럼 상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두터운 마음의 벽을 허물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걸림 없이 더욱 활발하게 임하자"고 당부했다.

부산대학교수불자연합회는 1989년 11월 1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박규상 교수(동아대)를 초대회장으로 창단해 해마다 부처님오신날 초청대법회,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단기출가 수련법회 등 20년째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지원 기자



업장소멸 법률탈대 (윤장대) 사찰경제 살려!!!

매일매일 경전을 읽는 공덕 업장이 소멸하는 법률탈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쪽 법률탈 1080분의 부처님이 봉안되어 가족 이름은 물론 경전을 복장하는 행사가 줄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전생록에 기록된 금강경을 각 개인마다 다른 숫자로 법률탈대에 복장하게 되어 전생에 묵은 빛, 해탈이 복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률탈대의 특징

- 1. 대한민국 수제명품으로 불교문화의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률탈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전기로 걱정 없이 에메랄드 빛이 나는 10w 전구 하나로 조명되어 법당 장엄은 물론 사찰경제 지킴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도량에 따라 (관음, 지장, 약사여래 등) 천불 및 만불전 법률탈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1-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경남 거창군 교재면 개림리 1156-4 달마사

법률탈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 인증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

